

독일노동 운동의 黎明

韓 基 榮

目 次

- | | |
|--------------------|--------------------------|
| I. 서 論 | IV. Wilhelm Weitling의 사상 |
| II. 1848년 혁명과 노동운동 | V. 결 論 |
| III. 노동계급의 형성 | |

I. 서 論

Louis Philippe의 퇴위와 프랑스 제2 공화국을 낳게 한, 1848년, Paris 2월 혁명은 3월에 독일을 덮었다.

4월 19일, Berlin의 어느 검소한 Bierlokal(맥주집)에서 자발적인 독일의 노동자 조직이 이뤄진다. 그것은 1848년을 지나서 오늘에 이르기 까지 중요한 사회적·문화적 결과를 야기하게 될 사건이었다. 그것으로 1848~1849년의 독일 최초의 노동운동이 시작하는 것이다.¹⁾ 영국과 비교하여 볼 때 1848년 까지 독일에서는 정치적 노동운동이란 것이 거의 없었다. 그 이유는 독일이 다른 서부 유럽 국가들 보다 산업화가 늦게 시작되었기 때문만 아니라, 1848년 이전에 독일의 연방국가들이 모든 자유주의적 활동을 탄압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영국법에서는 결사금지(das Koalitionsverbot) 조항이 1824~1825년에 폐지되었던 반면 독일에서는 정치단체 설립금지와 결사금지가 1848년 혁명 때까지 그대로 남아 있었다. 게다가 독일에는 엄격한 검열법도 있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수공업자들의 질병·보조·사망기금 제도와 같은, 사실상 노동조합적 활동으로 볼 수 있는 사회적 자조기구가 19세기 이래 독일에도 소개되어 있었다. 또 18세기 말 이래로 도시의 도제들이 작업을 중단하는 등 때때로 총파업(generalstreik)을 내걸고 파업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1) M. Quarck, Die erste deutsche Arbeiterbewegung. (Leipzig: Verlag von C. L. Hirschfeld, 1924), s. 1.

한편으로는 자유주의적 중산 시민층, 다른 한편으로는 도제나 노동자들이 이니셔티브(Initiative)를 쥔 교육연합조직(Bildungsvereine)이 생겨나, 자체의 프로그램으로서 지식의 전달, 시사문제 등에 중점을 둔 친교나 토론들도 있었다. 다만 정치적 활동은 외국에 망명중이던 도제들의 교육연합 조직에서 비밀리에 전개되었다. 프랑스, 영국, 스위스 등지에서 이러한 교육연합의 활동이 활발하였다. 특히 스위스 베른(Bern)에는 1834년 정치적 비밀결사로서 〈새로운 독일〉—— 후에는 〈청년독일〉——이란 것이 있었고, 파리에 있는 〈의인 동맹(Bund der Gerechten)〉이 있었는데, 이들은 Wilhelm Weitling의 이념적 영향을 받고 있었다.²⁾

이 글에서는 1848년 혁명을 전후한 독일 산업화 과정에서 형성되는 노동자 계급의 구성과 그들의 정신적 지주(支柱)의 일익을 담당했던 Wilhelm Weitling의 사상을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다.

II. 1848년 혁명과 노동운동

1830년과 1848년 사이에 London, Paris, Brüssel 등지는 자유를 위한 움직임의 중심지가 되었고, 영국과 프랑스의 신문 특히 프랑스의 책들은 그들의 국내 사정과 더불어 불만이 가득찬 독일인들의 읽을 거리가 되었다.³⁾ 사람들은 사회적 문제에 관하여 이야기 하였으며 그 문제는 세계무역과 산업화로 인한 피할 수 없는 수반 현상으로 보였다. 산업혁명은 우선 오늘날 우리들이 느끼는 바의 축복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숫적으로 증가한 임노동자(Lohnarbeiter)의 빈곤화와 예측을 가져왔다.

너무나 적은 토지를 소유하였으므로 생활이 어려워 농촌을 떠난 많은 사람들이 제4신분의 이른바 임노동자의 다수를 이루었다. 그들중에는 영업의 자유이후 경합의 압력에 배겨날 수 없었던 수공업자도 적지 않았다. 이농과 도시인구의 증가는 노동력의 과잉공급(Überangebot an Arbeitskräften)과 임금하락(sinkenden Löhnen) 현상을 불러 일으켰고, 따라서 가족의 부양은 가장 혼자 힘의 힘이 아니라 부인과 아이들이 함께 일함으로써 지탱할 수 있었다. 하루 15시간의 노동시간은 잘 지켜지지 않아 그것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았고 일요일도 일했고 밤에도 일했다.⁴⁾

제화공, 양복공, 가구사, 자물쇠공들의 끊임없는 증가는 수요를 넘는 제품 생산을 확대시켰다. 이러한 현상이 경쟁으로 감지되고 일부 수공업자들을 궁핍에 직면토록 하여 직업의 변경을 강요받는 등 생존의 한계에 직면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특히 직물공들에 닥친 곤경은 다른 어느 부문보다 심각한 것이었다. 대륙봉쇄령이 철폐된 뒤 산업화의 선구적 역할을 담당하였던 영국의 면제품이 독일시장에 쇄도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독일 자체내에서의 기계에 의한 섬유산업의 자극은 이들에게 커다란 고통으로 작용한 것이다. 40년대에 실레지아를 비롯한 직조공들의 폭동은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야기된 것이었다.⁵⁾ 저임금, 실업에 대한 불안, 질병——노후——노동불능에 대비한 너

2) 박경서 옮김, 「독일 노동 운동사」, 한빛, 1985. p. 35.

3) Ursula Schulz. Die Deutsche Arbeiterbewegung. 1848~1919. dtv. 1981. s. 21.

4) Rückert/Lachner. Grundriß der Geschichte. Band 2, Ferdinand Schöningh (München:Paderborn Blutenburg-Verlag. 1971). s. 24.

5) 이민호, 1848년 혁명과 수공업자들, 서양사론 XXV호, 1984, p. 17.

덕하지 못한 배려, 더 나아가 일자리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의 결여로 노동자의 참상은 극에 달했으며, 여러 산업 부문에서 수공업적 생산이 기계에 의한 생산으로 바뀌어 감에 따라 지금까지의 임금의 하락을 촉진 시킨 것이다. 기계에 들어 닥친 파괴자들은 그들 노동자들의 궁핍의 원천을 그속에서 찾았던 새로운 기계들은 두들겨 부수었다.

1844년 실레지엔 직조공들의 봉기를 진압하기 위하여 심지어 군부가 개입하게 된 것이다.⁶⁾ 가장 최악의 상태는 Schlesien, Sachsen, 그리고 Westfalen에서의 방적공과 직조공들의 가내수공업의 비참함이었다. (Am schlimmsten aber war das Elend des Hausgewerbes der Spinner und Weber in Schlesien, Sachsen und Westfalen.)⁷⁾ 1844년의 어느 신문보도를 인용한 글쉴, 사회적·경제적 발전을 특히 고려한, Rückert/Lachner의 책을 통해 소개해 보겠다.

“7월 3일 아침에 Katharinenberg의 일단의 노동자들이 집합했다. 그리고 그곳의 방적공들에게 그들과 합세하여 많은 사람들의 호구지책(糊口之策)을 알아간 새 방적기계를 파괴할 것을 요구했다. Sigmund Neuhäuser의 큰 공장에서는 5대의 새롭고 아름다운 기계들이 완전히 파괴되어 강물에 던져졌다. 이제 군중은 Rosenthal의 herrn Ginzel의 공장으로 향해 잠겨진 문을 부수고 30대에서 40대에 이르는 기계들을 파괴했다……”⁸⁾

1837년 바덴 신분회의(die badische Ständeversammlung)에서의 대의원 Franz Joseph Buß의 표현은 특징적이라고 하겠다. 우리들 시대의 세계사적인 현상으로 끌어 올려진 산업상의 급변은 하나의 민족의 본질에까지 깊이 관여한다. 그러한 급변은 그것의 전체적인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나는 대량생산에 의한 산업의 이점(Vorzüge)을 결코 오해 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이점의 결과 다음과 같은 심오한 결함이나 불이익이 따른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것은 1. 공장 노동자에의 불이익, 2. 공장주에게 불이익 3. 국가에의 불이익이다. 공장 노동자에의 불이익은 다시 다음과 같은 5가지 방향으로 나타난다. ①경제적 처지 ②건강 ③지적 교양 ④올바른 정책상의 배려 ⑤윤리적 및 종교적인 분위기 등이다. 또한 Buß는 정책상의 배려에 관해 덧붙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공장 노동자들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억제되어 있으므로, 한번도 정당한 정책적인 보호를 향유하지 못한다. 공장제도는 하나의 새로운 성격의 연속관계를 낳는다. 공장 노동자는 고용주에 의해 예속된 사람이며, 고용주는 그 노동자를 유익한 도구로서 이용할 따름이며, 낡아 빠지면 버린다. 노동자의 정치적 위치도 절망적이다. 노동자는 그의 예속성 때문에 정치적 권한을 향유할 수 없으며 그 권한은 노동자로 하여금 고용주의 도구로서 고용주의 기분에 따라 움직이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다. 국가는 국가에 부여된 실체법(das materielle Recht) 즉 전체 노동자의 지위를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단지 가난한 사람으로서 노동자 자신이 국가의 은혜를 느끼게 할 따름이다.⁹⁾

1840년대 독일 노동자들은 그들이 자본주의 체제에 의해 착취당하고, 사회로 부터 추방당하고, 근대적 노예로서, 그리고 품위있는 사람들로 부터 업신여김을 받는 Proletariat라고 느꼈다. 그들은 세상이 공평하다는 신념감을 잃었으며, 조국과 종교와 그리고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의심스

6) Rückert/Lachner, Ibid., s. 25.

7) Helga Grebing, Geschichte der deutschen Arbeiterbewegung, dtv, 1981, s. 22.

8) Rückert/Lachner, Ibid., s. 25.

9) Ursula Schulz, Ibid., s. 23.

러운 존재가 되었다.¹⁰⁾ 1848년 3월 15일자 Berlin의 *Vossische Zeitung*은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기고 있다.

폐왕전하! 여러해 전부터 괴로움을 당하고 억눌려 온, 각종의 노동자들이 감히 폐하께 부탁을 올립니다. 부탁은 다름 아니라 모든 노동자들의 오늘날의 커다란 고통과 실업 및 그들의 미래를 보장하는 신속한 시정책입니다. 모든 국민이, 노동을 통해 그의 생활 필수품을 만족하게 얻을 수 있고 인간으로서의 자기 요구를 주장할 수 있을때 국가는 번영하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자본가와 고리대금업자(Wucherer)에 의해 압제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법률은 우리들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폐하께 고용주와 노동자가 함께 참석하고, 그 대표가 쌍방의 내부에서 선출되는, 노동자를 위한, 하나의 부(ein Ministerium)를 설치해 줄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와 같은 불만이 억압받는 국민의 참다운 원인을 알 수 있고 노동자의 운명을 개선할 수 있고 위기에 처한 국가를 방어할 수 있고 그리고 침해의 우려가 있는 모든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¹¹⁾

1848년 3월 26일 이래 Berlin 노동자들은 Schönhauser 성문 앞에 모였다. *Zeitungshalle* 그리고 Ad. Wolff의 *Revolutionschronik*에서 교정한 보고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 (10명 가운데 4사람의 기록만 소개 하겠다.)¹²⁾

① 건축노동자 Bötticher : 우리는 단지 9개월 동안 일한다. 겨울에는 빗을 얻어야하고 여름에는 다시 갈아야 한다. 적은 임금으로 우리는, 어느 누구를 정당하게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임금상승을 요구한다. 그리고 14시간의 노동시간은 너무 많다. 그리고 일을 하느라고 이리 저리 쫓아 다니다 보면 18시간이 된다. 아버지는 어린애들의 웅얼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없다. 집으로 올때는 애들은 벌써 잠들어 있고 밖으로 나가도 그들은 아직 잠에서 깨어 나질 않는다. 건축주로 부터 우리는 건축주가 줄 수 있는 인상된 임금을 받고 싶어한다.

② 철물공 Siegerist : 전체 기계공의 이름으로 나는 노동의 단점을 하소연한다. 우리들은 지극히 세상일에 어두운 직공장을 최고의 위치에 두고 있다. 그 직공장은 우리들이 장인(Meister)에게서 부터 아침식사를 얻어 먹을 수 있는 기회를 거의 제공해 주질 않는다. 노동부는 전체주의를 지향할 것이다. 노동부는 노동계급이 존속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4Taler로 확정해야 한다. 노동부는 노동시간을 10시간으로 내려야 하고 회계관리를 감독해야 한다.

③ 유평공(鞣皮工) Wilke : 우리들의 소원은 성취되었고, 다시 살육이 되풀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들은 우리들 스위스인의 보답을 요구한다. 우리들은 아침 5시에서 저녁 7시까지 일한다. 아침 6시에서 저녁 6시까지로 확정하는 2시간 정도의 노동시간 단축과 주당 4Taler로 하는 임금 인상은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④ 인쇄공 Brill : 우리들은 함께 싸웠고 모두 일치 단결하려고 한다. 서로 토론할 수 있는 오늘의 기회를 놓친다면 우리들의 힘은 분산될 것이다. 우리는 보다 높은 임금을 달라고 장인(Meister)을 강

10) Rückert/Lachner, Ibid., s. 25f.

11) Ursula Schulz, Ibid., s. 57.

12) 순서대로 4사람만 소개함.

요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참된 가치는 값진 것이고 그리고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장인을 과멸시키고 싶진 않다(소음). 나는 당신 처럼 노동자이며 똑같이 참된것과 옳은것을 하려고 한다. 나도 역시 임금인상을 바라지만 Meister와의 호의적 의견 일치를 통해, 우호적 방법으로 이뤄지길 바랄 뿐이다. 왜냐하면 물건의 값을 Meister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이 결정하기 때문이다. 더우기 노동자가 그의 정신적 수양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노동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것은 불가피하다. 지금까지 존재한 사회는 노동자에게 큰 잘못을 저질러 왔다. 노동자들이 빵을 요구했을 때 그들은 무장경관으로써 되돌려 보냈다. 왜 그렇게 했을까? 노동자들은 학식이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는 국가의 비용으로 국민교육을 요구한다(Ich verlange daher Volkserziehung auf Kosten des Staates.)¹³⁾.....,

이제 시민, 기업가 그리고 생산수단을 소유한 “bourgeois”는 그들 노동자들의 적이었으며 계급의 대립이 날카로와 지기 시작했고, 사회적 빈곤이 점차 정치문제로 등장했다.¹⁴⁾

Ⅲ. 노동계급의 형성

사회학적 관점에서 본다면 Marx의 계급 이론은 상당한 부분이 타당성이 없다. 이 말은 Marx의 사회학적 연구 목적 자체가 사회학적 관점이 아니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Marx가 사회변동을 설명하기 위해 제시한 여러가지 개념은 매우 중요한 것들이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역할분화」 「기능의 변천」 「사회적 지위의 평준화」 등의 개념들은 사회변동 현상을 설명하는데 매우 중요한 개념들이다. 그러나 사회변동을 설명하는 수단과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물론 하나의 개념으로서 모든 유형의 사회변동을 설명할 수는 없다. 만약 Marx가 절대론적 관점을 제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Marx의 이론에서 시작하여 보다 급진적으로 사회변동론을 정립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Marx는 갈등집단을 제시하고 그리고 갈등집단들 사이의 충돌이 곧 사회변동의 요인이라고 제시하면서 사회구조와 사회변동간의 관계를 다룸으로써 매우 중요한 공헌을 하였다. 비록 사회적 갈등으로 인하여 기존의 사회조직과 행위양식이 변동되지만 모든 경우가 다 그러한 것은 아니다. Marx는 분명히, 비록 그것들이 산물이 아니라 유산이라고 할지라도, 19세기의 의식세계를 뒤덮은 18세기의 2사건 즉 프랑스혁명과 산업혁명의 기억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18세기의 프랑스혁명과 산업혁명은 「인간이 역사를 만들고」 「발명이 역사를 만든다」라는 것을 제시해 주고 있다. 심지어는 오늘날의 사가(史家)들도 역사적 전환기에 있어서는 탁월하고 강력한 개인 혹은 기술혁신이 사회변동의 원동력 내지는 요인이라고 하는 생각을 쉽게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Marx는 프랑스 혁명과 산업혁명을 다른 요인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는 탁월하고 강력한 개인의 능력에 의해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기술혁신으로 산업혁명

13) Eduard Bernstein. Die Geschichte der Berliner Arbeiter-Bewegung. Verlag Detlev Auvermann K. G., Erster Teil. 1972. s. 28 ff.

14) Rückert/Lachner. Ibid., s. 26.

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많은 이름모를 사람들이 이 사건들을 낳는데 있어 눈에 보이는 역할을 담당 했다는 것이다. 결코 그들은 목적과 행동에 있어서 일치 하질 않았다. 오히려 그는 적대 감정 관계에 있는 집단들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프랑스 혁명과 산업혁명이 일어났다고 설명하고 있다. 우리가 알다시피 18세기의 혁명전통은 Marx로 하여금 영감을 불러일으켰을 뿐만아니라 또한 잘못 이끌기도 했다. 그는 또 사회적 갈등으로 인하여 사회변동이 일어나지만 오직 대규모의 혁명적 방법에 의해서만 사회변동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그는 이러한 오류에도 불구하고 집단이나 계급간의 갈등이 사회변동의 원동력이라는 점을 정확하게 발견하였다. 이 발견은 비록 피상적이기는 하지만 언급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아래와 같은 2단계의 분석과정을 거쳐서 정립되었다. 첫째, Marx는 사회적 갈등을 사회구조의 유형을 변동시키는 배후의 원동력으로 보았다. 둘째, Marx는 특별히 주어진 상황에서 가장 심각한 한가지의 사회적 갈등이 있다고 가정했다. Marx의 이 가설이 어떠한 비판을 받든간에 사회적 갈등은 어떤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확실하다.¹⁵⁾ 야무진 Proletarier는 그들 노동의 댓가로 매일 매일의 임금을 받고 그들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고용계약에 의존하는 사람들, 매일 매일의 노고(勞苦)의 결과로서 단지 조그마한 부분—— 그것도 경쟁으로 인해 끊임없이 줄어들게 되는——을 버는 사람들, 불확실하고 무질서한 산업활동처럼 변하기 쉬운 희망속에 그들의 내일을 기대할 수 밖에 없는 사람, 나이를 먹어서 유일한 탈출구를 일찍 죽는 것으로서 혹은 어느 자선 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염려해야만 하는 사람들을 일컫는다.¹⁶⁾

1840년대 중반까지독일의 양상은 농업국가와 수공업 국가의 모습이 압도적이었다. 농업 및 공업 생산은 대체로 이러한 견고한 생산계층이 도맡았으며 그들의 경영양식은 당시 독일 국가 및 개인 생활을 대변했다.¹⁷⁾ Preußen 통제국은 다음과 같은 노동자의 숫자를 알려주고 있다.¹⁸⁾

1816	1846	
186, 612	656, 592	———— 공장노동자
179, 020	379, 313	———— 도제
880, 401	1, 470, 091	———— 수공업자
1, 081, 589	1, 271, 608	———— 가내고용인
2, 327, 622	3, 777, 604	합 계
10, 169, 899	15, 908, 776	전체시민

1822~1846년의 시기에 Preußen 전체 인구(군인가족을 포함하여)가 약 38% 증가했다. 같은 시기에 ①가구공의 숫자는 118%, ②달구지공 52%, ③구두공 역시 52%, ④통장이 42%, ⑤재단사 40%, ⑥철물공 40%, ⑦대장장이 37%, ⑧푸숫간주인 30%, ⑨빵제조업자 및 ⑩과자제조업자가 약 27%의 증가를 보였다. 이들 중에서 가장 숫자를 많이 차지한 최초의 6개 부문이 인구에 비하여 가장 뚜렷

15) Ralf Dahrendorf, *Class and Class Conflict in Industrial Society*, (Stanford University Press, 1959), pp. 124~126.

16) Jean Reynaud, *Proletarier und Bourgeois*, in *Die Frühen Sozialisten*: Herausgeben von Frits Kool und Werner Krause(Walter-Verlag Olten und Freiburg im Breisgau, 1967), s. 288.

17) M. Quarck, *Ibid.*, s. 1.

18) Ursula Schulz, *Ibid.*, s. 45.

한 Meister의 증가를 보인다.¹⁹⁾

대체로 수요가 많은 도시에서 개인영업을 시작한다는 것은 어려웠으며 여기에서 새로운 기업을 창설하는 것 보다 기존의 것을 확대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했다. Meister(匠人)와 Geselle(徒弟) 사이의 관계는 협정에 대해 부분적으로 대립이 날카로워지기 시작했다.²⁰⁾ 많은 수공업자들은 — Meister이건 혹은 Geselle이건 한결같이 — 결국 수공업 무산자로 전락하는 것을 스스로 원하지 않는한, 공장노동자의 존재를 철두철미 추구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바랐다.²¹⁾

1848년 수공업 운동에서 강조된 중산층 위기의식이란 사회적 기능의 변질에 대한 구체적 평가에 의존하기 보다는 주관적이고 관념적인 관점을 반영하는 것이다. <황금의 중용을 지킨 수공업자>란 전통적인 귀절은 이미 빛이 바랜 구호에 불과하다. <중산층>의 개념이 얼마나 애매한 것인가는 직인들로 구성되어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독일노동자대회에서 조차 확일할 수 있다. 노동자로 자처한 이들조차 자유주의 경제체제에 의해서 부자는 더욱 부유해지고 빈자는 더욱 가난해지어 <중산층>은 몰락하고 노동자는 걸인이 된다고 개탄하였던 것이다. 1848년 3월 혁명에서 수공업자들의 노동자라는 의식이 양극화의 개념을 반영한 것과 같이 중산층의 위기 의식도 Proletariat로 전락되기를 두려워 하는 소시민의 의식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의 관점에서도 19세기 중엽에 있어서 사회적 기능속에서 수공업자들이 놓인 객관적인 사회적 지위를 확인하기 보다 규범적 논리에 입각하여 사회의 양극화를 강하게 의식하는데 시종하였다.²²⁾ Hamburg는 19세기 후반까지도 엄격한 조합규제하에 놓여 있었다. 하나의 독립한 가정을 이루거나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은 시민권을 얻어야 하며 그 목적을 위해, 비록 그가 Meister가 될 수 없거나 되지 않으려고 할때에도, 이미 조합과 타협을 해야만 한다. 만약에 그가 조합규약에 따르는 요구를 들어준다면, 즉 그의 일생을 조합규약에 따라서 끝낸다면 그는 Geselle(도제)로서 모든 관습을 이행하는 것이 되고 규정된 실습기간을 끝낸것이 된다. 쉽게 이야기 해서 그가 조합에 규정된 법칙과 관습을 이행하면 그는 결론적으로 조합과 타협을 하는 것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노동자나 그와 비슷한 사람으로서의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다.

시민인 경우에,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부분적으로 어느정도의 현금을 가지면 'Meisterrecht(匠人權)'을 가질 수 있다. 시민이 된 수공업자가 자기 분야에 숙달하고서도 단지 돈이 없어 Meisterrecht를 얻지 못한다면 조합 규칙에 어긋나는 기회를 이용하는 것이 당연하였다. Zunftmeister로 부터 미움을 받고 박해당하는 "Bönhasen"(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수공업자)이 발생하였고 이들의 숫자는 점점 증가하였으며 그시대 이미 피부로 느낄 정도로 변화한 생산관계가 그들의 영향을 나타냈다. 반대로 Preußen의 1845년의 영업조례는 Stein개혁 입법 이후 계속 발전해 왔고 아직 버티고 있는 지역에 까지 확대된 영업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조합에의 가입강제와 심사규정을 금지했다. 예컨대 벽돌공의 경우처럼, 긴박한 이해관계에 자격증명이 놓여 있었던 몇몇 수공업자

19) M. Quarck, Ibid., s. 3.

20) M. Quarck, Ibid., s. 3. 여기서의 도제는 Geselle와 Lehrling을 합쳐 부르는 뜻으로 이해함.

21) Helga Grebing, Ibid., s. 22.

22) 이민호, 위의 글, p. 31.

만이 Lehrlinge(견습도제)를 가질 권능이 주어졌다. Preußen의 이러한 상황은 통찰해 보면, 어떤 새로운 것이거나 영향력 있는 것으로서는 생각되질 않는다. 왜냐하면 영업활동의 자유아래에서 근대 산업과 철도가 발전할 수 있었고 흉작의 경우 혹은 어느 특정의 지역에 나쁘게 나타난 기근의 경우에 거의 숙명적으로 나쁜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고 있기 때문이다.²³⁾ 1848년 혁명 무렵의 노동제급은 1846년의 Preußen 통제국에 의한 자료로 어느정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공장노동자, 수공업자, 도제(Geselle와 Lehrling을 합하여) 그리고 가내 고용인들이 노동운동의 주축을 이루었으리라 믿는다.

IV. Wilhelm Weitling의 사상

W. Weitling은 1808년 10월 5일 Magdeburg에서 태어나 1871년 1월 25일 New York에서 죽었다. Karl Marx보다 10년, 그리고 Stephan Born보다는 16년 앞서 태어났다. 그의 유년 시절에 관해서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으나 《가장 비참한 환경속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그것을 글로 표현하자니 소름이 끼친다》고 Weitling은 말했다.²⁴⁾ 프랑스군 장교였던 그의 아버지는 Napoleon의 러시아 원정(1812)때 죽었으며 Gera(Thüringen) 출신인 그의 어머니 Christine Weitling은 그뒤 Schneider Bern과 결혼했다. Weitling은 Magdeburg에서 국민학교를 다녔고 그뒤 1822년 어느 재단사에게서 도제수업을 받았고(zu einem Schneider in die Lehre geschickt), 그로부터 여성복 재단사 기술을 익혔다. 도제로서 그는 Hamburg, Leipzig, Dresden, Prag, Wien 등지를 떠돌아 다녔다.

Wien에서 — 여기에서 그는 어느 대공(Erzherzog)의 연적으로서, 어느 소녀의 사랑을 받았고 그 때문에 그의 연적에 의해 그 도시로부터 추방당했다 — 1835년 10월 Paris로 가게 된다. 1836년에서 1837년 까지 또다시 Wien으로, 그리고 Straßburg를 거쳐 Schweiz에서 1841년까지 살게 된다. 1835년 Paris에 있을 때, Weitling은 공화주의 및 민주주의 성향을 지닌 망명자들로 이루어진 조직, 《망명자 동맹》(Bund der Geächteten)에 독일인의 한사람으로서 가입했다. 1836년 말에 이동맹은 분열되었고 여기에서 다시 새로운 《의인 동맹》(Bund der Gerechten)이 형성되었다. Wien에서 Paris로 되돌아 온 Weitling은 이 비밀동맹의 영향력있는 구성원이 되었고 곧 중앙기구의 의장으로 선출된다.²⁵⁾ Weitling의 목표는 필연적인 평등공산주의(Gleichheitskommunismus)이다. 화폐의 폐지, 재산의 공동소유, 〈모두의 동일한 생활상태〉, 국가 경제선의 폐지, 전인류의 〈형제화내지는 가족화〉 등이었다. Weitling은 즉각적인 전복과 무력 봉기를 거듭거듭 강조했다.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이 해체중인 수공업적 신분 질서에 묶여 있었다는 것이다.

23) M. Quarck, Ibid., S. 4f.

24) Wilhelm Weitling, in Die Frühen Sozialisten; Herausgegeben von Frits Kool und Werner Krause, (Walter-Verlag Olten und Freiburg im Breisgau, 1967), s. 465.

25) 출고, 독일 Proletariats의 탄생, 제주대학교 논문집 제18집, 1984. p. 361.

Weitling은 수공업자와 소상인 계층, “도시와 농촌의 단순하고 조화된 생활”을 보호하는 것에 우선적인 역점을 두었지 산업화나 무산계급을 염두에 두진 않았다. 그러나 바로 그런 점이 어떤 소박한 신앙심과 혼합되어 외국에 있는 수공업 도제들에 대한 그의 영향력을 다져 주었다. 그 당시 그들의 사회적 자아의식이 아직도 <프롤레타리아적>은 아니었고 사회적 위치도 수공업 신분의 이념에 의해 결정되는 경향이 여전히 매우 강력했기 때문이다. 독일 수공업자들에 대한 Weitling의 영향은 1843년 이후 점차 약화되기 시작했다. 그는 1846년 Marx·Engels와 논쟁후 미국으로 건너갔고, 1848년 혁명 기간 동안 잠시 귀국했다가 다시 미국으로 건너간 뒤로 이내 정치 일선에서 물러났다.²⁶⁾

Weitling의 최초 저술인 《인류의 현재와 그가 가야할 길》은 1838년에 출판되었는데 《의인동맹》의 강령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 책에서 Weitling은 공산주의적 재산 공동체 안(Plan einer Kommunistischen Gütergemeinschaft)을 제시하여, 국가가 없어진 후에, 이러한 완전한 경제질서가 전인류의 완전한 사회로 이끌것을 희망했다. 1842년에 출판된 다른 주요 저작 《조화와 자유의 확산》에서 Weitling은 처음의 제안을 변경하여 발전시켰다. 여기에서 혁명후 공산주의가 도입될 때까지의 과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소수 독재자를 들것을 주장했던 것이다. 1843년, 마지막으로 《가난한 죄인의 복음서(Das Evangelium des armen Sunders)》가 《정의, 500일간의 연구(Gerechtigkeit. Ein Studium in 500 Tagen)》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집필되었는데, 이것은 인쇄되지 않은 상태로 있다가 1929년 처음으로 출판되었다. Weitling의 최초 저작 《인류의 현재와 그가 가야할 길》은 강한 메시아적 사명의식과, 지상에서 이루어야 할 복음적인 사명이 자신이 구상한 공산주의 미래사회의 정신과 내용을 결정짓게 되리라는 확고한 신념으로 씌어진 것이다. 《인류의 현재와 그가 가야할 길》은 다음과 같이 시작되고 있다.

“결실이 풍성하려면 할 일은 너무도 많다. 바로 여기에서 노동자가 탄생하고 수확이 시작된다. 결실의 들판은 영광의 들판이요, 노동은 자랑스럽고 임금은 영원불멸의 것이 되었다. 이웃 사랑이야 말로 우리들 결합의 상징이요, 참다운 하나님의 제물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그리고 이웃을 당신 자신처럼 사랑하기를! 우리로 하여금 이웃사랑을 가다듬을 칼날이 되게 하소서.”

Weitling의 이같은 기독교적 해석은 공공연한 항의소동을 빚었고, 고유의 기독교적 구원의 확실성은 그가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겼던 것과는 “다른 전제로부터 출발한다”(W. Schieder, S. 265.)는 사실을 그 자신도 깨달았던 것 같다. 그러기에 《조화와 자유의 확산》에서 그는 벌써 기본적으로 성경에 보다 적은 비중을 두고 있고 그의 사고는 계몽적·합리적인 특성을 두드러지게 나타내고 있다. W. Schieder의 최근 연구는 Weitling의 《복음서》와 《정의》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기독교 정신과 성서에 대한 논증이 단지 책략적이며 선전적인 수단(ein taktisch-Propagandistisches Mittel)이었다는 것을 밝혀 주고 있다.²⁷⁾

Weitling의 첫 작품 “인류의 현재와 그가 가야할 길”은 “공산당 선언”의 앞선 형태로 이해할 수

26) 박경서, 위의 글, pp. 21-22.

27) Helga Grebing, Ibid., s. 26 f.

있으며 다음의 글을 첫머리에 내걸고 있다.

“공화국이 헌법이라는 이름들은 멋있는 것이긴 하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가난한 국민은 굶주리고 있으며 입을 옷이 없고 그리고 늘 괴로와 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음의 혁명은 이름 뿐인 공화국과 헌법을 개선해야 하며 따라서 그 혁명은 사회혁명이 되어야 한다”²⁸⁾

그의 이론의 기초는 프랑스 사회주의 역사에서 커다란 역할을 수행했던 ‘평등’(Gleichheit)이며 세 제사는 성실한 사람들이 항상 그 속에서 기만당해온 하나의 거짓 이야기에 불과하다고 본다.²⁹⁾

Marx와 Engels는 Proletariat가 군주정치와 봉건주의에 대항하는 Bourgeoisie의 투쟁에서 우선 그들을 도와 주어야 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는데 반해 Weitling은 다가오는 혁명에서 공산주의 질서의 직접적인 실현을 기대하고 있었다.³⁰⁾

어떠한 인간의 총명함도 이성적인 방법도 이러한 사회적 불평등을 다 없앨 수가 없다. 이러한 불평등은 또한 인간 지식의 발전의 원천이기도 하므로 사회적 불평등의 소멸이 사회의 복지와 꼭 일치 하는 것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평등과 균등한 개인의 자유는 끊임없이 위협을 받고 있다. 따라서 공산주의 원칙과 공산주의적 체제를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 요점이다. 모든 사회적 조직은, 그것이 어떠한 원칙을 표방하건간에 — 혼란을 야기하지 않는한 —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규정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의 구별이 나타난다. 인간다운 마음이 시금석이다. (Das menschliche Herz ist ein Prüfstein.) 인간다운 마음이 인류의 보편적인 목적과 그것의 옹호를 위해 희생, 사랑, 용기, 동정 그리고 모든 고귀한 감정으로 타오를 때, 그러한 마음은 진정한 공산주의 자에게서 나타난다. 이성이 공산주의를 위해 마음에서 부터 말하고 고귀한 감정들을 보호하고 돌보는 곳에 참된 공산주의 이론이 나타나는 것이다.³¹⁾ 독일 철학은 바로 독일 년센스의 핵심이다. 요컨대 사람들이 철학이란 명목으로 추구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 외는 아무것도 아니다. 철학은 현학적인 말투로 꾸며내고, 형이상학적인 눈가림으로 교묘하게 조립하는 것이다. ……나는 철학의 무의미함에 구역질이 날 뿐이다. 철학이 물론 최고의 진리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형이상학적인 년센스의 더미속에서 진실에 대한 수없이 많은 희미한 흔적을 찾을 뿐이다. 나는 그 속에서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고 배울수도 없다. 독일철학을 아는체하는 신출나기와 바보들이 애매한 공산주의로써 국민을 혼란시키고 결국엔 마치 기독교와 크리스트의 사랑이 곡해 되듯이 공산주의의 개념이 곡해 되었다.³²⁾

Weitling은 정확히 유토피아적 사회주의와 프롤레타리아적인 사회주의의 한가운데 위치한다.³³⁾

28) Kurt Lenk, Theorien der Revolution. (München: Wilhelm Fink verlag, 1981), s. 48.

29) Franz Mehring, Geschitje der deutschen Sozial-Demokratie, Band 1 Berlin: Dietz Verlag, 1980), s. 100.

30) Kurt Lenk, Ibid., s. 49.

31) Wilhelm Weitling, Was ist Kommunismus? in Die Frühen Sozialisten: herausgegeben von Fritskool und Werner Krause, Walter-Verlag olten und Freiburg im Breisgau, 1967. s. 472 f.

32) Wilhelm Weitling, Ibid., s. 475.

33) Franz Mehring, Ibid., s. 101.

행복은 만족에 그것도 자유의 만족에 있다. 그러나 일체감이 없는 자유는 부분적으로 개인을 위해서 좋으나 모두를 위해서 좋다고 생각할 수 없다. 그러나 만약에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공동체 상태에서 생활하고 그속에서 교육을 받게 된다면, 비록 그들이 한주에 단 한번만 고기를 먹고 술을 마신다고 해도, 그들은 오늘날 불균형 상태의 특권자 보다 자유롭고 만족한 삶을 함께 누릴 것이다.³⁴⁾

Weitling의 계급개념은 아직도 상대적으로 미발달의 독일 상황에 기초하고 있다 : 따라서 그는 한편으로, 봉건영주나 자본소유자와 같은 게으름뱅이, 무위 도식자(Umsonstfresser)를 인식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수공업자이건, 농부이건 혹은 Proletarier이건간에 무산 노동 대중을 인식한다. 그러한 대중을 결합시키는 요소는 공동으로 겪고 있는 비참함이며, 그것을 의식하기 위해, 의식의 날카로움을 더한다. : 그속에서 Weitling은 자기의 사명감을 느낀다. Weitling은 마르크스주의의 전략을 불신하고, 독일에서 시민의 공화국이 탄생한다고 해도 Proletarier는 그들이 군주국 타도에서 얻은 승리의 열매를, 프랑스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사기당할 것이라는 것을 우려하고 있었던 것이다. 《의인동맹》의 목표는 Babeuf의 전략을 계승하고 선전과 혁명적 행동을 통해 직접 관여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회구했던 사회혁명을 완성시키는데에 있었던 것이다.

“Fourier가 자기의 계획을 실현시키는데 있어서 국가로부터 기대하던것, Proudhon이 시민사회 체제에서 바뀌었으면 하던것, 또 Louis Blanc이 국가 행정을 통해 도달하려고 하던것, 이 모든 것을 Weitling은, Blanqui와 그의 동료들이 바라던 것과 마찬가지로, 혁명에서 기대하고 있었다.”³⁵⁾

그때에는 이기주의의 메마른 눈에 다시 형제애로 축축히 젖은 눈물이 흘러 들 것이고 악인의 마음에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미덕의 감정이 스며들 것이며 무신론자가 하늘에 감사의 기도를 올리게 될 것이다. 형제들이여 ! 앞으로 가자. 중생대의 기후속에서 살던 공룡이 Mammon의 저주를 입에 담으며 사라진것을 기억하면서, 인류를 하나의 가정으로 변화시키고 우리의 눈물이 이슬 방울이 되어 지구를 낙원으로 바꿀 수 있는 자유의 시간을 기다리자고 Weitling은 외친다.³⁶⁾ 대체로 종교 관계의 일은 적은 노동시간을 가지면서 편안한 생활을 하는 한가한 사람들의 일이다. 하루에 4~6 시간 정도의 일을 하면서 일요일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리고 대체로 좋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원하기만 하면 종교적인 행사를 할 수 있고 설교시간을 가질 수 있고 미사를 올릴 수 있다.³⁷⁾ 개념과 관계의 혼란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다음과 같은 기본 원칙을 엄격히 지켜야 하고 이원칙들로부터 올바른 해결책을 끄집어 내야 한다. 공산주의는 모든 인간들에게 균등한 관계속에서 적용되는 정당성이다. 따라서 다른 사람보다 적게 일하면서 더 많이 즐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 부당함 즉 도둑질을 일삼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은 그들 보다 적게 일하면서 더욱 많이 즐기는 사람들에 의해 도둑질 당한다고 생각되어져야 하고 따라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도둑질 당한것을 되돌려 받을 권리를 갖는다.

34) Ursula Schulz. Ibid., s. 28 f

35) Kurt Lenk, Ibid., s. 49.

36) Ursula Schulz. Ibid., s. 29.

37) Wilhelm Weitling, Ibid., s. 477.

도둑질은 사회적인 질서를 판단하는 시금석이다(Der Diebstahl ist also der Proberstein der gesellschaftlichen Ordnung.)³⁸⁾ 이상의 Weitling의 근본 사상은 부유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의 것을 훔치면 범죄행위이나 가난한 사람이 부유한 사람의 것을 훔치는 것은 올바른 행위(eine gerechte Tat)라고 하는 것, 하나의 이상적 가정을 꿈꾸는 지상 낙원을 건설하려는 인류애, 혁명이 역사 발전을 실현시키는 유일한 효과있는 방법이라는 등의 그야말로 유토피아적 그리고 Proletariat적 사회주의 이념이라고 할 수 있겠다. 19세기의 인물 Weitling은 20세기의 인물이 아니었다. 인간은 역사의 산물이지만 역사는 인간에 의하여 만들어 지는 것이다.³⁹⁾ 훌륭한 지도자의 숭고한 사상과 결정적인 행동이 없었다면 세계역사의 발전이 상당히 지체되어 왔을 것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그 위인은 그 속에서 그가 성장해 온 보다 넓은 사회환경에 본질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할 수는 없다.⁴⁰⁾ 진보는 대체로 위인들에 기인하는 것처럼 보이며 사실 종종 그렇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 그렇더라도 위인이 갖고 있는 여러가지 특성은 그가 살고 있는 사회의 것이며 그가 위대하다고 하는 것은 그의 운명이 주어져 있는 사회의 기본 경향을 누구보다도 참되게 마음속에 그리고 있으며 또 그가 당시의 참된 시대 정신을 최고의 구현자로서 다른 누구보다도 성공적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⁴¹⁾ 사회를 민주화하는 일은 무한한 물질적 진보라는 허위의식과 맞서 이를 무마시키기는 했지만 궁극적으로 자본에 대한 결정을 이윤 추구의 동기와 분리시키지는 못할 것이다. 목적에 대한 경제적 동기가 정치적 동기와 상당 부분 연결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전혀 다른 맥락이 있다. 주관적 동기는 분명히 이윤을 극대화 하려는 관심과 불가분으로 맺어져 있으며 이 주관적 동기는 아직 정치적 동기와는 무관하다. 하지만 세계 열강과의 경쟁 속에서 자기 국가의 위치를 강화하려는 관심이 생겨나다 보면 주관적 동기는 사회적 동기로 이행한다.⁴²⁾ 영국과 프랑스에 비해 독일은 산업화의 시기가 늦었다는 점, 영토지배에 대한 불합리한 분산책, 농업과 상업을 압박했던 봉건적 속박 그리고 무지하고 불손한 관료제가 잔존하였던 19세기 독일의 사회적, 경제적 상황에서 Weitling을 평가해야 옳을 것이라 믿는다.

V. 결 론

1848년 이전 독일의 가장 뚜렷한 사회주의자로 여겨지는 Wilhelm Weitling(1808~1871)도 초기에는 Lamennais 처럼(그는 개신교도였지만), 종교적인 믿음으로 충만되어 있었음이 분명하다. Weitling의 저술에는 또한 Saint Simon, Fourier, Cabet, Owen의 영향도 엿볼 수 있다. 방랑하는 재단사였던 Weitling은 Marx·Engels 이전에 Paris에 <의인동맹>(후에는 공산주의자 동맹)을 조직하여 정치적인 성격을 나타냈다.

38) Ibid., s. 478 f.

39) Edwin R. A. Seligman, *The Economic Interpretation of Histor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49), p. 101.

40) Ibid., p. 96.

41) Ibid., p. 98.

42) 홍윤기, 이정원 옮김, 「이론과 실천」, 종로서적, 1982, p. 293.

Weitling은 Paris나 Schweiz에 있는 도제연맹에서 크게 인정을 받았다.⁴³⁾

훗날, 그가 말한 바에 따르면, 혁명이란, 혁명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또 혁명이 무엇 때문에 일어난 것인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 혁명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는 국민을 속일 수 있었다.⁴⁴⁾ 우리는 독일 초기의 사회주의로부터 공산주의에 이르는 독재적 과도기의 국면으로서 Weitling을 주시할 수 있겠다. 1848년 〈노동자 우애회〉의 구체적인 목표는 보통선거에 의한 의회민주 국가, 노동자 단결권 보장, 생산과 소비를 위한 협동조합 설치, 뜨내기 보조기금, 취업소개, 진보적 건강관리기구 및 병자 보조금과 사망자 보조금등을 위한 기구의 확산이었다.

즉, 사회적·정치적 요구사항들은 윤리적 고양을 위한 우애와 연대의식에 찾아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와같은 정치이념을 대표하는 사람들은 수공업적 소기업과 공장의 수습과정이 끝난 노동자, 수공업 도제 및 숙련 공장 노동자들이었다.⁴⁵⁾ 우리는 Weitling의 “Das Evangelium des armen Sünders”(가난한 죄인의 복음서) 그리고 “Garantien der Harmonie und Freiheit”(조화와 자유의 확신)를 통하여 그가 추구한 인간적 마음, 인류애를 찾아야 할 것이다. August Becker의 표현을 빌어 “우리의 관심은 결코 독일인의 것이 아니라 전인류의 일이기 때문이다.”⁴⁶⁾라는 말로 결론에 가름한다.

43) 박경서 옮김, 위의글, p. 20.

44) Kurt Lenk, Ibid., s. 48.

45) Helga Grebing, Ibid., s. 45.

46) August Becker, Unsere Sache ist keine deutsche, sondern eine menschliche, in Die Frühen Sozialisten; Herausgegeben von Frits Kool und Werner Krause, Walter-Verlag Olten und Freiburg im Breisgau, 1967, s. 485.

Zusammenfassung

Das Auftreten der deutschen Arbeiterschaft

Han Kee-young

Wilhelm Weitling (1808–1871) der als der profilierteste deutsche Sozialist vor 1848 angesehen wird, war anfangs von ähnlichem religiösem Glauben erfüllt wie Lamennais, auf den er sich ausdrücklich—obwohl Protestant—berief; auch Saint-Simons, Fouriers, Cabets und Owens Einflüsse sind in seinen Schriften (Das Evangelium des armen Sünders. Die Menschheit, wie sie ist und wie sie sein sollte. Garantien der Harmonie und Freiheit.) erkennbar. Weitlings Vorstellungen zielten auf einen konsequenten Gleichheitskommunismus ab: Abschaffung des Geldes. Gütergemeinschaft, gleiche Lebenslage aller, Aufhebung der nationalen Grenzen und Verbrüderung aller Menschen zu einem Familienbund der Menschheit. Neuere Forschungen (W. Schieder) haben ergeben, daß für Weitling im Evangelium und in der Gerechtigkeit das Christentum und die Argumentation mit der Bibel nur noch ein taktisch-propagandistisches Mittel waren. Ich Möchte diesen Artikel mit August Becker's Ausspruch beenden: "Unsere Sache ist keine deutsche, sondern eine Menschliche."★

★ August Becker, Unsere Sache ist keine deutsche, sondern eine menschliche, in Die Frühen Sozialisten: Herausgegeben von Frits kool und Werner Krause.